

일부 치위생(학)과 학생들의 임상실습 감정노동과 자아존중감이 직업정체감에 미치는 융합적 요인

최정희
광양보건대학교 치위생과

Convergence factors of emotional labor of clinical practice and self-esteem on professional identity in some dental hygiene students

Jeong-Hee Choi

Department of Dental Hygiene, Gwangyang Health University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일부 치위생(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임상실습 감정노동과 자아존중감이 직업정체감에 미치는 융합적 요인을 조사하고자 실시하였다. 전남지역에 소재한 대학 3개교에 재학 중인 치위생(학)과 학생 205명의 자료를 사용하였다. 수집된 모든 자료는 SPSS 12.0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자아존중감과 직업정체감은 양의 관계($r=0.366, p<0.01$)를 보였지만 임상실습 감정노동과 직업정체감은 음의 관계($r=-0.213, p<0.01$)로 나타났다. 치위생(학)과 학생들의 직업정체감에 영향을 미치는 융합 요인은 전공만족도($\beta=0.434$), 자아존중감($\beta=0.236$) 그리고 임상실습 감정노동($\beta=-0.199$)이었다. 설명력은 34.6%의 영향력을 보였다. 따라서 치위생(학)과 학생들의 직업정체감 향상을 위하여 전공 만족도와 자아존중감을 증진시키고 임상실습 시 경험하는 감정노동 관리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리라 사료된다.

주제어 : 융합, 치위생(학)과 학생, 임상실습 감정노동, 직업정체감, 자아존중감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convergence factors affecting professional identity perceived by the emotional labor of clinical practice and self-esteem in some dental hygiene students. The questionnaire was conducted in 205 dental hygiene students from 3 university in Jeollanam-do area.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SPSS 12.0. Professional identity correlated positively with self-esteem($r=0.366, p<0.01$), negatively with emotional labor of clinical practice($r=-0.213, p<0.01$). The convergence factors influencing professional identity were satisfaction level with majors($\beta=0.434$), self-esteem($\beta=0.236$) and emotional labor of clinical practice($\beta=-0.199$). The regression model explained 34.6% of professional identity. Therefore, to enhance professional identity in dental hygiene students, it is required to program development to improve satisfaction level of with majors, self-esteem and management of emotional labor of clinical practice.

Key Words : Convergence, Dental hygiene student, Emotional labor of clinical practice, Professional identity, Self-esteem

1. 서론

우리나라 치위생학 교육은 50여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1], 치위생학 교육의 목표는 전문직업인으로서의

사명감과 책임감이 강한 구강보건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이다[2]. 이러한 구강보건전문가로서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이론과 지식을 바탕으로 환자를 직접 접해보는 임상실습 교육이 필수적이다[3]. 임상실습교육

*Corresponding Author : Jeong-Hee Choi (spss1403@nate.com)

Received March 19, 2018

Revised April 20, 2018

Accepted May 20, 2018

Published May 28, 2018

과정을 이수하기 위해서는 익숙한 강의실을 벗어나 다양한 치위생 실무현장에서 낯선 의료진과 환자를 만나게 되고 관계형성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으면서 감정노동을 경험하게 된다.

감정노동이란 사람 대 사람으로 상호작용을 하는 동안 조직이 요구하는 감정표현을 하기위한 개인의 노력, 계획, 통제를 의미하는데[4], 임상현장에서 치과위생사는 치과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자신의 감정을 외부로 표출하는 것을 자제하며 자신의 감정과 무관하게 항상 친절하게 대해야 하는 감정노동을 경험하고 있으며 치과위생사의 감정노동은 스트레스 증가와 직무소진, 직무만족도를 감소시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였다[5]. 치위생(학)과 학생 또한 임상실습현장에서 낯선 의료진, 직원, 환자 및 보호자와 상호작용을 하며 실습을 수행하고, 임상실습이 학점으로 연계되어 있어 의료진과 환자의 만족을 위해 감정노동을 경험하면서 직업에 대한 정체성이 흔들릴 수 있다.

자신에 대해 부정적 혹은 긍정적 평가로서 자기 자신을 존중하며 가치 있다고 믿는 정도를 나타내는 자아존중감이 높은 경우 스트레스 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고[6,7], 대인관계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8] 간호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자아존중감이 직업정체감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9].

직업에 대한 자신의 목표나 흥미, 능력에 대한 안정적인 청사진을 의미하는 직업 정체감을 형성하지 못한 채 취업을 하게 되면 직업 만족도가 떨어져 이직의도가 높아질 수 있다고 하였다[10,11]. 그런데 치위생학을 공부하는 학생들은 구강보건전문인력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과중한 학업과 필수적으로 임상실습에 임해야 하므로 학업 중에 심리적인 부담감과 스트레스가 증가하고 흥미를 잃는 등 부적응을 경험하여 직업에 대한 정체성 혼란이 올 수 있다. 따라서 치위생(학)과 학생의 직업 적응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직업정체성에 영향을 주는 융합적 요인을 파악하여 직업정체성을 향상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데 치위생(학)과 학생들의 임상실습 시 감정노동과 자아존중감이 직업정체감에 미치는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치위생(학)과 학생들의 임상실습 감정노동과 자아존중감이 직업정체감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여 직업정체감을 높이기 위한 기초자료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대상 및 방법

2.1 연구대상

대상자는 임의표본추출방식으로 전남지역에 소재한 대학 3개교를 선정하여 치위생(학)과 3, 4학년 재학생 215명을 대상으로 자기기입식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중 응답이 불성실한 10명을 제외하고 총 205명을 대상으로 최종분석을 시행하였다.

2.2 연구방법

2.2.1 일반적 특성

학년, 종교, 학업성적, 대학생활만족도, 전공만족도, 학과 선택 동기를 포함한 6개의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2.2.2 임상실습 감정노동

Morris 등[4]이 개발한 감정노동 척도 중 남 등[12]이 원척도와 비교하여 신뢰도와 타당도를 인정받은 9개 문항을 본 연구의 목적과 대상자에 적합하게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까지 5점 리커드 척도로 측정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임상실습 감정노동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내적 신뢰도(Cronbach's Alpha)는 0.854이었다.

2.2.3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을 측정하기 위하여 전[13]의 연구에서 이용되었던 10문항을 본 연구에 맞게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5점 리커드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까지 점수를 부여하였고 부정적인 문항은 역환산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내적 신뢰도(Cronbach's Alpha)는 0.853이었다.

2.2.4 직업정체감

Holland 등[10]이 개발한 MVS(My Vocational Situation) 척도 중 권 등[14]이 연구에 이용하였던 14문항을 본 연구에 맞게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4점 리커드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그렇지 않다’ 2점, ‘그렇다’ 3점, ‘매우 그렇다’ 4점으로 부여하였다. 부정적인 문항은 역환산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직업정체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14개 문항에 대해 내적신뢰도를 나타내는 Cronbach's Alpha는 0.902로 신뢰도가 높게 나타났다.

2.3 통계분석

수집된 모든 자료는 SPSS 12.0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일반적인 특성, 임상실습 감정노동, 자아존중감, 직업정체감은 기술통계를 하였고,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직업정체감의 차이는 t-test와 one-way ANOVA를 시행한 후 Scheffe multiple comparison으로 사후검정을 하였다. 임상실습 감정노동과 자아존중감 및 직업정체감과의 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를 이용하여 분석하였고 직업정체감에 영향을 주는 융합 요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stepwise multiple linear regression analysis를 시행하였다.

3. 연구결과

3.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는 총 205명 이었다. 학년은 3학년 83.4%, 4학년 16.6%이었고 종교는 유 26.3%, 무 73.7%로 나타났다. 학업성적은 57.1%의 학생이 '상'이라고 응답하였고, 대학생활만족도는 보통 53.2%, 만족 25.9%, 불만족 21.0% 순으로 나타났다. 전공만족도는 보통 54.1%, 만족 29.8%, 불만족 16.1%로 응답하였고, 치위생(학)과를 선택한 동기는 취업고려가 66.3%로 가장 높았다. Table 1

Table 1.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205)

Variables	N	%
Grade		
Grade 3	171	83.4
Grade 4	34	16.6
Religion		
Yes	54	26.3
No	151	73.7
Academic score		
High	117	57.1
Middle	74	36.1
Low	14	6.8
Satisfaction level with college life		
Satisfied	53	25.9
Moderate	109	53.2
Unsatisfied	43	21.0
Satisfaction level with major		
Satisfied	61	29.8
Moderate	111	54.1
Unsatisfied	33	16.1
Motivation of choosing dental hygiene		
For aptitude	18	8.8
For employment	136	66.3
For the result of the examination	8	3.9
Advice from others	40	19.5
Etc	3	1.5

3.2 대상자의 임상실습 감정노동, 자아존중감, 직업정체감 정도

대상자의 임상실습 감정노동 평균은 3.37점, 자아존중감 평균은 3.47점, 직업정체감 평균은 2.30점이었다. 각각의 내적신뢰도(Cronbach's Alpha)는 0.854, 0.853, 0.902로 높게 나타났다. Table 2

Table 2. Variables of descriptive statistic (N=205)

Variables	Cronbach's Alpha	M±SD	Range
Clinical practice emotional labor	0.854	3.37±0.62	1-5
Self-esteem	0.853	3.47±0.58	1-5
Professional identity	0.902	2.30±0.48	1-4

3.3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직업정체감 정도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직업정체감 정도를 분석한 결과 직업정체감 정도는 대학생활만족도, 전공만족도, 치위생(학)과 선택 동기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01). 대학생활과 전공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직업정체감이 높게 나타났고, 치위생(학)과 선택 동기가 '적성을 고려하여' 입학한 경우가 다른 경우보다 직업정체감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Table 3

3.4 임상실습 감정노동과 자아존중감, 직업정체감의 상관관계

임상실습 감정노동과 자아존중감, 직업정체감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자아존중감과 직업정체감은 양의 관계(r=0.366, p<0.01)를 보였지만 임상실습 감정노동과 직업정체감은 음의 관계(r=-0.213, p<0.01)로 나타났다. 그러나 자아존중감과 임상실습 감정노동은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Table 4

3.5 직업정체감에 영향을 미치는 융합 요인

대상자의 직업정체감에 영향을 미치는 융합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인 대학생활만족도, 전공만족도, 치위생(학)과 선택동기, 임상실습 감정노동, 자아존중감을 독립변수로 직업정체감을 종속변수로 하여 단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설명력은 34.6%의 영향력을 보였다(Adjusted R²=0.346, F=12.189).

Table 3. Professional identity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205)

Variables	M±SD	t or F	p-value
Grade			
Grade 3	2.30±0.49	-0.028	0.977
Grade 4	2.30±0.43		
Religion			
Yes	2.37±0.45	1.393	0.165
No	2.27±0.49		
Academic score			
High	2.29±0.48	0.405	0.668
Middle	2.29±0.46		
Low	2.41±0.64		
Satisfaction level with college life			
Satisfied	2.52±0.45 ^a	21.243	0.000 ^{***}
Moderate	2.33±0.44 ^b		
Unsatisfied	1.94±0.42 ^c		
Satisfaction level with major			
Satisfied	2.60±0.45 ^a	38.666	0.000 ^{***}
Moderate	2.27±0.39 ^b		
Unsatisfied	1.83±0.43 ^c		
Motivation of choosing dental hygiene			
For aptitude	2.75±0.49 ^a	7.716	0.000 ^{***}
For employment	2.31±0.46 ^c		
For the result of the examination	2.33±0.26 ^{abc}		
Advice from others	2.04±0.46 ^b		
Etc	2.43±0.31 ^{abc}		

^{***}p<0.001 by the independent t-test or one-way ANOVA

^{a, b, c} The same character indicates no significant difference by Scheffe test at $\alpha=0.05$

선정된 독립변수들 중 직업정체감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전공만족도($\beta=0.434, p<0.001$)와 자아존중감($\beta=0.236, p<0.001$), 임상실습 감정노동($\beta=-0.199, p<0.01$)이었다. 전공만족도($\beta=0.434, p<0.001$)와 자아존중감($\beta=0.236, p<0.001$)이 높을수록 직업정체감은 높게 나타났고, 임상실습 감정노동($\beta=-0.199, p<0.01$)은 낮을수록 직업정체감이 높게 나타났다. Table 5

Table 4. Correlations among variables (N=205)

	Emotional labor	Self-esteem	Professional identity
Emotional labor	1		
Self-esteem	0.060	1	
Professional identity	-0.213 ^{**}	0.366 ^{**}	1

^{**}p<0.01 by Pearson's correlation analysis

Table 5. Convergence factors affecting professional identity (N=205)

Independent variable	Unstandardized coefficient		standardized coefficient	t	p-value
	B	SE	β		
Satisfaction level with major	0.314	0.044	0.434	7.217	0.000 ^{***}
Emotional labor	-0.155	0.044	-0.199	-3.491	0.001 ^{**}
Self-esteem	0.195	0.050	0.236	3.935	0.000 ^{***}
R ² =0.356, Adjusted R ² =0.346, F=12.189					

^{**}p<0.01, ^{***}p<0.001 by stepwise multiple linear regression analysis

4. 고찰 및 결론

본 연구는 임상실습 시 경험하는 감정노동과 자아존중감이 치위생(학)과 학생들의 직업정체감에 미치는 융합적 요인을 분석하여 직업적 수명을 개선하고 양질의 구강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에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시행하였다.

치위생(학)과 학생들이 임상실습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감정노동 정도는 평균 3.37점/5점이었다. 이는 간호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남 등[11]의 연구에서의 평균 3.44점/5점 보다는 낮게 나타났다. 간호과 학생들이 치위생과 학생들에 비해 임상실습 시 환자 및 보호자와 좀 더 밀착관계에 있고, 규모가 큰 종합병원이나 대학병원에서 주로 실습을 하다 보니 더욱 더 많은 환자를 상대함으로써 인해 감정노동 정도가 높게 나타난 것으로 생각된다.

치위생(학)과 학생들의 자아존중감 정도는 평균 3.47/5점이며 강[15]의 일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자아존중감 정도는 평균 3.07/5점 이었고 오[16]의 간호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자아존중감 정도는 평균 2.66/5점으로 치위생(학)과 학생들의 자아존중감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일반대학생들의 경우 낮은 취업률로 인하여 취업을 위해 스펙을 쌓는 과정에서 스트레스가 높아져 자아존중감 정도가 치위생(학)과 학생들에 비해 낮게 나타난 것으로 사료되고, 한국간호평가원에서 간호과 학생들은 1000시간 이상의 임상실습 교육을 필수인증기준으로 제시하고 있어[17] 치위생(학)과 학생들에 비해 더 긴 시간의 임상실습을 경험하면서 낯선 환경에서 자기주장을 하지 못하고 스트레스를 받으며 자아존중감이 많이 떨어졌으리라 생각된다.

치위생(학)과 학생들의 직업정체감 정도는 평균 2.30/4점 이었고, 전공만족도와 대학생활만족도가 높을수록 직업정체감이 높게 나타났다. 전공만족도는 개인이 선택한 미래의 진로나 직업에 대한 기준과 비교하여 현재 자신이 속해 있는 학과를 평가하는 판단과정의 산물이고[18] 치위생(학)과의 특성상 전공에 따른 직업과의 연계성이 높다보니 전공만족도가 직업과 관련된 자아 정체성인 직업정체감에 영향을 주었으리라 생각된다. 또한 올바른 직업 정체감 확립은 대학생활 적응도를 높여 직업적응에 도움을 주고, 반대로 뚜렷하지 못한 직업정체감은 직업 부적응과 관련이 있다고 하였다[19]. 대학생활

만족도가 높으면 대학생활에 잘 적응하여 학업에 대한 긍정적인 동기부여가 일어나 직업정체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리라 생각된다. 적성을 고려하여 치위생(학)과를 선택한 대상자가 다른 이유로 치위생(학)과에 진학한 대상자보다 직업정체감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간호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한 정 등[20]과 남 등[11]의 결과와 유사하게 나타났는데 후속 연구를 통해 적성을 고려한 다양한 신입생 선발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자아존중감과 직업정체감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는데 구 등[21]의 연구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나타났다. 자아존중감이 높은 학생은 자신의 생활을 가치 있게 생각하면서 자신감이 높아져 바람직한 행동 변화를 일으켜 실습에 대한 만족도가 상승하면서 직업정체감도 높게 나타난 것으로 생각된다. 반면에 치위생(학)과 학생들의 임상실습 시 감정노동과 직업정체감은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올바른 직업정체감 형성을 위해 임상실습 시 감정노동을 줄일 수 있는 전략 마련이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종합하면 전공만족도와 자아존중감, 임상실습 감정노동이 직업정체감 형성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에 임상실습 시 경험하는 감정노동 관리를 위한 대인관계, 의사소통, 스트레스 대처법에 관한 프로그램 운영과 자아존중감을 증진시킬 수 있는 교육과정이 필요하리라 사료된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첫째, 설문지를 이용한 조사이므로 조사대상자의 주관적인 편견과 오류의 가능성이 있고, 둘째, 전남지역에 소재한 대학 3개교를 임의 선정하여 그곳에 다니는 치위생(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연구 결과에 대한 일반화가 어렵다는 점이다. 이러한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를 통해 치위생(학)과 학생들의 직업정체성에 영향을 미치는 융합 요인을 파악할 수 있었으며, 향후 본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직업정체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에 기초자료로 활용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REFERENCES

- [1] S. E. Moon, Y. J. Kim, S. Y. Kim, H. E. CHO & B. R. Lee. (2016). Instructors' needs of integrated curriculum in dental hygiene practice. *J Korean Soc Dent Hyg*,

- 16(5), 799-805.
<http://dx.doi.org/10.13065/jksdh.2016.16.05.799>.
- [2] S. K. Kim & Y. S. Jung. (2010). Dental hygiene students' stress during clinical practices and stress coping styles. *J Korean Soc Dent Hyg*, 10(5), 887-895.
- [3] J. H. Choi, E. K. Ko & S. L. Lee. (2013).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erceived family support and satisfaction of clinical practice by dental hygiene students. *J Korean Soc Dent Hyg*, 13(2), 315-322.
- [4] J. A. Morris & D. C. Feldman. (1996). The dimensions, antecedents, and consequences of emotional labor. *Academy Manage Review*, 21(4), 986-1010.
<http://dx.doi.org/10.2307/259161>.
- [5] Y. S. Lee, J. H. Jang & A. E. Moon. (2011). The effects of emotional labor and stress on job satisfaction in oral health professional. *J Korean Soc Dent Hyg*, 11(5), 823-831.
- [6] J. R. Lee, H. J. Kim & H. J. Ko. (2014). The effect of self-esteem interpersonal relationship abilities on department satisfaction in the dental hygiene student. *J Korean Soc Dent Hyg*, 14(1), 33-49.
<http://dx.doi.org/10.13065/jksdh.2014.14.01.33>.
- [7] W. R. Avison & I. H. Gotlib. (1994). *Stress and mental health: Contemporary issues and prospects for the future(3rd ed)*. New York : Plenum press, 153-168.
- [8] M. S. Lee & K. M. Chae. (2012). The mediating effects of emotion regulation strategie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esteem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 abilities. *Cognitive Behavior Therapy in Korea*, 12(1), 63-75.
- [9] H. Jo & G. Y. Lee. (2006). Self esteem and career identity of nursing students. *J Korean Acad Public Health Nurs*, 20(2), 163-173.
- [10] J. L. Holland, D. C. Daiger & P. G. Power. (1980). *My vocational situation Palo Alto*. CA : Consulting Psychology Press.
- [11] M. H. Nam & M. R. Lee. (2016). The effect of emotional labor of clinical practice, self-esteem and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on professional identity in nursing students. *J Korean Acad Soc Nurs Educ*, 22(4), 527-536. <http://dx.doi.org/10.5977/jkasne.2016.22.4.527>.
- [12] M. H. Nam & H. O. Kim. (2016). Relation between clinical practice emotional labor, self esteem and major satisfaction of among nursing student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4(1), 263-273.
<http://dx.doi.org/10.14400/jdc.2016.14.1.263>.
- [13] B. J. Jeon. (1974). A test of it's measurability. *Yonsei University Journal*, 11, 107-124.
- [14] Y. H. Kwon & C. N. Kim. (2002). Effect of a ready planned self growth program through MBTI on interpersonal relationships and the career identity of nursing college students. *J Korean Acad Community Health Nurs*, 13(2), 216-229.
- [15] K. H. Kang. (2010). *A study on relationships among college student's self-differentiation, self-esteem and employment stress*. Doctoral dissertation. Inje University, Kimhae.
- [16] J. H. Oh. (2014). The influencing factors of self-esteem and major satisfaction on college adjustment among nursing students. *J Contents Assoc*, 14(10), 873-884.
- [17] Y. J. Lim. (2017). The impact of nursing students' emotional labor and clinical practice stress on burnout. *J Learn Cent Curri Instr*, 17(6), 461-474.
<http://dx.doi.org/10.22251/Jlcci.2017.17.6.461>.
- [18] S. G. Kim, Y. K. Koo & M. A. Jeong. (2012). Satisfaction with major and view of profession among dental hygiene students. *J Contents Assoc*, 12(8), 248-255.
- [19] K. N. Kwon & E. H. Choi. (2010). Factors affecting career identity of nursing students. *J Korean Acad Public Health Nurs*, 24(1), 19-28.
- [20] J. S. Jung, M. J. Jung & I. Y. You. (2014). Relations between satisfaction in major,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and career identity of nursing students. *J Korean Acad Soc Nurs Educ*, 20(1), 27-36.
<http://dx.doi.org/10.5977/jkasne.2014.20.1.27>.
- [21] H. Y. Koo & H. S. Im. (2013). Comparison of factors influencing satisfaction of clinical practice between associate and bachelor nursing student. *J Contents Assoc*, 13(1), 311-321.
<http://dx.doi.org/10.5392/JKCA.2013.13.01.311>.

최정희(Choi, Jeong Hee)

[정회원]



- 2009년 2월 : 조선대학교 보건학과(보건학박사)
- 2008년 3월 ~ 현재 : 광양보건대학교 치위생과 부교수
- 관심분야 : 구강보건학, 치위생학
- E-Mail : spss1403@nate.com